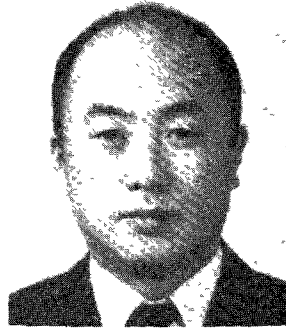


축산인들의 어깨가 넓어졌다



〈선진사로 이원복 사장〉

지난해 2월 총선 이후 20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휴전 이후 베이비붐이 붙어 이때 태어난 23세에서 29세까지가 약 570만명이라고 하니 4,100만 인구의 14%가 몰려있는 셈이다. 이세대가 국민학교로 물리면서 국민학교가 3부제 4부제로 열병을 앞섰고 이 세대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입시지옥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대학 정원이 30%나 늘어나고 의무경찰, 방위 등으로도 많이 나갔는데도 대학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때는 TV탈렌트나 배우, 가수들이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적이 있었고 총리나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었던다. 그후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선수가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역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최고의 선망의 대상은 대입에비고사의 최고득점자자 아난가 생각된다.

지난해인가는 청소년을 하는 홀어머니의 아들이 최고득점을 하여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심어준 적도 있었다. 그때는 길을 가다 청소년

을 보면은 고연히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 마치 월드컵 예선진출권을 따낸 한일 축구전에서 승리할 때의 기쁨같은 것을 청소년들이 느꼈으리라.

몇년전엔 대구의 공군비행단에서 근무하는 한 장병의 아들이 수석을 하여 공군뿐이 아니고 전국군의 명예라고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전군이 거족적으로 축하한 것은 물론이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기쁨을 축산인들이 맛보게 되었다. 을축년을 보내고 병인년을 맞을 준비가 한창인 연말에 금년도 대입학력고사 최고득점을 이준걸군이 차지한 것이다. 이군은 선진축산 李元福사장을 아버지로 한 축산가족이다. 이군의 가정과 선진축산의 기쁨은 물론이려니와 축산업계의 경사가 아

닐 수 없다.

축산인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꿈을(비전) 제시하였고 축산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었다.

역시 축산을 해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지?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이군이 마치 축산인의 대표로 1등한 기분이니 말이다. 더군다나 이군이 졸업후, 안정되고 평탄한 길이 보장되어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법대 의대 상대가 아닌, 우리가 가장 뒤떨어지고 사회가 필요로 하면서도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기 에 기피하는 기초학문인 물리학과를 선택함으로써 또 한번 역시 축산인의 자녀는 무언가 다른데가 있구나 하는 점을 보여 주었다. 사람은 호산나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기는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성밖으로 나가는 싫어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축산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긍지와 꿈을 심어줄 제2, 제3의 이준걸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翰)